

“코로나 종식 전까진 제주여행 계속”

도·제주관광공사 2022 여름 제주여행 계획 조사 결과 해외여행 자유로워져도 42.2% “우선 제주여행부터” 여행 계획 짜는데 코로나 영향력 이전 만큼 크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제주여행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선 여름철 제주여행에 대한 선호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난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여름 시즌 제주여행 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 시즌 제주여행을 계획하는 시기로 ‘7월’과 ‘8월’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30.3%와 69.7%로, ‘8월’을 선택한 응답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7월’이 14.2%, ‘8월’이 85.8%로 응답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7월’을 선택한 응답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여행 계획에 변화가 생긴 부분에 대한 문항을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예상 체류기간(43.9%→20.2%), 예상 참여활동(36.4%→20.6%), 예상 방문지(35.2%→20.6%) 등 모든 항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응답한 비중이

줄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제주여행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선호하는 여행에 대해 ‘제주여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해외여행’(29.4%)보다 약 17%포인트 높았다. 내년 여름 시즌에 ‘해외여행’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자유로워진다면

“내년까지는 제주를 우선적으로 여행할 것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42.2%로 ‘해외여행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2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만약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면 가장하고 싶은 여가 활동(1+2+3순위)은 ‘해외여행’(58.1%), ‘제주여행’(40.1%), ‘제주 이외의 국내여행’(39.3%)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 데이터R&D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해외여행을, 현재와 같은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제주여행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선호도

는 내년 여름시즌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주여행의 1인당 지출 비용(항공료 제외)은 평균 48만3655원으로 지난해(39만2797원)보다 9만원 가량 높아 예년 대비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예상 체류기간은 평균 3.82일, 동반 인원수는 평균 3.08명으로 지난해(체류기간 3.85일·동반인원 2.99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문 예정 지역으로는 성산일출봉을 선택한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으며 중문관광단지 41.4%, 용담해안도로 인근 41.4% 등 순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6일 제주시 도두무지개 해안도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풍경을 보며 제주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피서철 ‘코로나 재유행’ 우려가 현실로

제주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 1주 새 갑절 가량 늘어

80대 확진자 치료중 사망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

난 5일 하루 동안 3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 까지 3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8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652명이 확진됐으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236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규모는 전주 대비 913명 증가한 수치다.

제주에선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 205명이 발생한 데 이어 30일 184명, 이달 1일 216명, 2일 207명, 3일 174명, 4일 285명, 5일 381

명 등 피서철을 앞뒀 우려되던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격리 중인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격리 중인 확진 환자는 1504명이며 이중 1495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다.

고령층 신규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위중증 환자 수는 1명, 치명률은 0.08%를 보이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기상청 6월 기후특성 분석결과 평균기온 22.7℃로 역대 2위

폭염·열대야 일수는 1위 “고온다습 북태평양고기압 북상하며 기온 크게 올라”

제주의 올 6월은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6월로 기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6일 ‘2022년 6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평균기온은 22.7℃(평년 대비 +1.4℃)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역대 6월 중 가장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한 해는 지난해(22.8℃)다. 지난달 하순 평균 기온으로만 따지면 25.4℃로 2005년 24.8℃를 제치고 역대 1위에 올랐다.

올해 6월 평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역시 각각 25.7℃(평년 대비 +1.3℃), 20.3℃(평년 대비 +1.6℃)로 역대 2위와 1위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평균기온을 보면 제주

시가 23.9℃로 역대 1위, 서귀포 22.5℃로 역대 4위, 성산 22.1℃로 역대 4위, 고산 22.1℃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역별 기온 차가 큰 이유는 한라산 지형 효과에 의한 편향상 때문으로 제주기상청은 보고 있다.

역대급 더위로 폭염 지표도 높았다. 지난달 제주의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각각 1.3일과 2.3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강수량은 197.5mm로 평년(154.6mm~255.8mm)과 비슷했고, 강수일수는 13.3일로 평년보다 1.1일 많았다.

제주기상청은 “6월 후반에는 찬 공기를 동반했던 상층(고도 약 12km)의 제트기류가 이동하고, 동시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며 “여기에 장마전선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까지 강하게 불어 기온 상승효과가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어설픈 배선 연결 ‘에어컨 화재’ 부른다

제주소방, 실·내외기 연결부 발화 실험 결과 발표

“꼬아서 연결·절단 연결하면 화재 발생 위험성 매우 높아”

최근 제주에서 에어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소방이 ‘에어컨 연결부’ 관리를 당부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공동주택, 같은달 2일 서귀포시 대정읍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가동 중인 에어컨과 실외기를 잇는 연결부에서 불이 난 것이다.

화재가 잇따르자 제주소방 광역 화재조사단은 최근 ‘에어컨 실·내외기 연결부 발화 위험성 재현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에어컨 실·내외기 전원 배선 중간 연결부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선을 단순히 꼬아서 연결했을 때 접

촉 저항이 증가하면서 전선피복 및 보온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았다. 여기에 함께 있는 냉매공급 배관에서 결로현상으로 발생한 수분이 해당 연결부로 침투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배선으로 연장했을 경우에도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취 축 임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경 학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민일동